

남구, 공직자-돌봄이웃 '2기 멘토링' 스타트

'1대1 인연맺기' 2배 증가 취약계층 마음의 문 '활짝'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들이 1대1 멘토링 지원에 나선 지난 2년여 동안 공직자와 인연을 맺은 돌봄 이웃의 수도 2배가량 증가해 행복 동행의 발걸음이 확대되고 있다.

남구는 돌봄 이웃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에 시작한 1기 행복

멘토링단이 2년 간의 활동을 마치고, 2기 체계로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25일 밝혔다.

이번에 2기 행복 멘토링단에 합류한 간부 공무원들은 65명으로 1기 때보다 3명 증가한 규모다.

2기 행복 멘토링단은 1기 간부 공무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기 멘토링단은 출범 초창기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을 위해 도움이 필요

한 이웃 38명과 인연을 맺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현재 남구 간부 공무원과 1대1 인연 맺기에 나선 이웃만 65명으로 늘었다.

돌봄 이웃들도 1대1 멘토링 지원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할머니 품에서 성장 중인 조손가정의 한 아이는 "과장님과 같은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정의 한 보호자는 "지정 기탁 후원으로 아이가 학원 수강을

하면서 곧 직업도 생길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다른 보호자는 "임대 아파트 보증금과 둘째딸 학원비 지원 및 전화로 안부를 수시로 챙긴 모습에 매우 고맙다"는 의견을 보냈다.

남구 관계자는 "공직 사회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 이웃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면서 우리 이웃들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멘토링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청년의날 맞이 '청춘페스타' 개최 북구, 마켓·힐링 프로그램 등



광주 북구가 청년의 날을 기념해 오는 9월30일과 10월2일에 '2024 청춘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3번째 토요일이며 이번 청춘페스타는 북구가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축제다.

전남대학교 후문 일원 등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청년 세대 모두가 도약하라는 의미를 담은 '피어나라 청년'을 주제로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0일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펼쳐지는 개막식에는 문인 북구청장과 지역 청년 100여명이 함께 '북구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비전 선포 및 이행 서약 퍼포먼스'를 펼치고, 거리노래방, 댄스·밴드공연, 정책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또 행사기간 동안 전남대학교 후문 일원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이 개발한 로컬 디지털 메뉴를 비롯해 이미지 컨설팅, 디지털 드로잉, 바퀴 달린 청년센터 등 다양한 체험·이벤트 부스와 청년셀러들의 청춘마켓이 운영된다.

청년센터와 행복어울림센터에서는 커피, 조향, 베이킹, 라탄·캔들 공예 체험, 심리 세미나 등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과 청년정책 의견 수렴 이벤트가 지속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격려를 받으며 꿈 실현을 위한 용기를 얻길 기대한다"며 "청년의 도전정신이 지역의 미래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고령자·장애인 디지털 문해교육 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 파견

광주 서구는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사업인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 파견' 사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3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원이 주관하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고령특화 평생교육)' 공모에 선정돼 관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고령 학습자 23명이 디지털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서구는 이들과 함께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디지털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찾아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이용이 어려운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택시잡는법 등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19개 기관 435명의 주민이 교육을 신청했으며 서구는 실제상황과 같은 교육을 위해 조선이공대에서 지원받은 교육용 키오스크 2대를 매 수업 시 활용할 예정이다.

정상이 기자

충장축제기간 차 없는 거리 운영 동구, 금남로 일대 차량 통제

광주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10월 2-6일 축제 기간 동안 금남로 등을 통제,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통제 구역은 금남로공원부터 전일빌딩 245까지로 이곳은 28일 자정-10월7일 오전 7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예술의 거리와 금남로 4가 주얼리 거리는 10월1일 자정부터 10월7일 오전 7시까지 차량이 통제되며 이밖에 풍남옥-충장로 1가 입구는 2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차량 운행을 막는다.

이를 통해 축제 관람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좌석02, 점단09, 금호36, 윤림51, 송정98 등 시내버스로 우회하기 때문에 탑승 시 노선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충장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통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면서 "불편을 드린만큼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마을 소통방 추가 개소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올 들어 북구 관내 마을 소통방 4개소를 추가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조성된 마을 소통방은 △중흥동 '함께 꿈꾸는 화합 소통방' △동림동 '동림골 소통방' △풍향동 '학예마을 소통방' △두암2동 '참판골 소통방' 등이다.

센터는 2017년 신안동에 '징검다리 소통방'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북구 관내 12개 소통방을 운영 중이다.

마을 소통방은 주민이 운영 주체가 돼 마을에서 발생하는 갈등 예방·해결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운영된다.

윤준명 기자



지난 5월 월봉서원 '선비의 하루'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향사례(활쏘기) 체험 모습.

광주 광산구 제공

광산구,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 5건 선정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 등 사업비 5억8000만원 확보

광주 광산구는 국가유산에 대한 활용을 인정받아 국가유산청이 주최한 5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5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 사업으로는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달의 정원, 월봉서원'), '무양 in the city' △고택·종갓집 활용사업('광산, 가옥의 녹색생활')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

라)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등 5개다.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달의 정원, 월봉서원'과 '무양 in the city' 2건이 선정돼 월봉서원과 무양서원을 활용한 여러 인문 교육과 체험, 공연 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광산, 가옥의 녹색생활'이 선정돼 용아생가, 김봉호 가옥, 장덕동 근대한국 등 근대 한국의 특성을 살린 기후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에서는 광주

신창동 마한 유적의 출토 유물을 활용한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국가유산 교육프로그램인 지역국가유산교육 활성화 공모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대표 국가유산을 활용해 특색있는 브랜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서구, 청소년 꿈 키우는 '서구 에듀페스타' 개최

오는 28일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체험형 진로캠프, 영화 상영 등

광주 서구가 청소년을 위해 자기주도 진로탐색의 장을 연다.

서구는 오는 28일 오후 2-6시30분까지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서구 에듀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에듀페스타는 1부 자아탐색 진로 체험 베이스 캠프, 2부 행복교육 시네마 콘서트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초·중학생들의 희망직업을 주제로 5개 분야 12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직업흥미 유형을 사람, 사물, 자료, 사고로 분류해 검사자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는 진로적성 진단(프레지저 기법) △나무모형 미니어처 집모형 만들기를 체험하는 건설업 분야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심리상담사 대해 알아보는 보건·의료 분야 △메이크업·특수분장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관련 미용산업 분야 △웨어러블 로봇 코딩, AI 자율주행 자동차, AI 휴머노이드, 드론 주행 관련 4차산업 분야 등 다채로운 체험형 부스가 준비됐다.

2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

로 강화도의 꿈틀리인생학교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질문하는 청소년 성장 다큐멘터리 영화 '괜찮아, 엘리스'를 상영하고, 제작자인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를 초청해 시네마 토크를 진행한다.

아울러 2부 시작에 앞서 효광중학교 댄스 동아리의 공연과 '괜찮아, 엘리스' 영화의 주연배우인 김혜일 교장의 OST 공연도 펼쳐진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교육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미래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입시 중심의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